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보도자료

2022.6.30.(목)

담당 : 납품단가연동제도입팀 간사 이성만 의원실 연락처 : (02)784-6090

더불어민주당,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입법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납품단가연동제도입팀(팀장 송갑석)이 6월 30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신속한 도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 업계의 현장 의견과 주제 발표,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이에 연동시켜 올려 받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미 관련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선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중기부도 제도 도입을 시사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에 숙원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은 이날 "원자재 가격이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90%는 파산할 것"이라며 "돼지 가격이 오르면 삼겹살 가격이 오르듯,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납품단가도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원자재 가격 폭등 등 경제위기의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 동력을 상실하게 한다"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자재 인상률의 최소 30% 정도 납품단가를 인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말했다. 또한, "중기부 지정하는 표준계약서 보급 의무화, 공정위 주관 실태조사 실시 등 유관 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창석 교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최근처럼 가혹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동력은 꺼지고 침체되어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시 자동으로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원자재 납품단가 조정협의체를 설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기환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중기부는 연동제의 범위 및 업종 지정, 인상률 등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인센티브제 시범 적용 등 합리적인 연동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관계를 담당하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은 "연동제가 입법을 통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관행과 계약 문제 등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납품단가연동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기업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의 신속한 입법 등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당의 적극적 입법 의지를 밝혔다.

중기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 및 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공정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가 시급하지만, 연동제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거래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며 "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관계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의원은 "연동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그동안 거부되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재논의되고 있다"며 "중기부와 공정위,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팀 간사 이성만 의원은 "대의 환경이 불확실하고 원자재 가격이 널뛰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그동안 묵혀온 과제인만큼 이번 기회에 당력을 모아 이 제도가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갑석 의원은 “민생우선실천단 중에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팀만 단일 사항으로 뚝뚝 뭉쳤다. 그만큼 민주당의 연동제 도입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며 “연동제는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지만, 지금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 민생우선 실천단 납품단가연동제도입팀 송갑석, 이성만, 윤호중, 우원식, 권칠승, 김영진, 김경만, 신영대, 이장섭, 정태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 김남근 변호사,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도 토론회에 함께했다.

앞서 민생우선실천단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팀은 지난 28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반월표면 처리사업협동조합을 방문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현장감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 6. 30.

[참고자료]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토론회〉 계획(안)

□ 개요

- 일시 : 2022년 6월 30일(목) 14:00~15:30
- 장소 :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본청 202호)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 취지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제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대책 토론회

□ 참석자

- 민생우선실천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팀 소속 의원
- 사례발표 : 한국창호커튼월협회 유병조 회장 ((주)대원시엠씨 대표이사)
- 발제자 : 김남근(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장·변호사)
송창석(송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토론자 : 정기환 중소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

□ 순서

시간	소요 시간(분)	내용	비고
14:00~14:02	2	행사 및 참석자 소개	간사
14:02~14:05	3	모두발언(박홍근 원내대표)	
14:05~14:10	5	사진 촬영	간사
14:10~14:25	15	업계 및 현장 의견(유병조 회장)	
14:25~14:40	15	발제 1: 납품단가 연동제 도 필요성과 방안 (김남근 변호사)	
14:40~14:55	15	발제 2: 납품단가 연동제 구성과 설계(송창석 교수)	
14:55~15:10	15	지정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간사
15:10~15:25	15	자유토론	간사
15:25~15:30	5	마무리 인사(송갑석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팀장)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토론회> 현장 사진

